

## 뉴욕 불교계가 함께 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 미동부해외특별교구 5월 6일 제등행렬 개최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는 5월 6일 제24회 뉴욕 국제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개최했다.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조계종 스님들과 타 불교국가 스님, 한국교포 및 현지 미국인 불자 등 25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맨해튼 15번가, 6애브뉴, 18번가, 브로드웨이, 14번가 등에서 정성들여 만든 색색의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행진을 하였으며 유니온 스퀘어 파크로 돌아와서 회향을 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에는 유니온스퀘어파크에서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의 외국 절과 함께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휘광스님은 이날 봉

축사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이므로 모두 다 동등하고 훌륭하고 아름답다"며 "뉴욕 불자들과의 친분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 더욱 많은 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989년 이후 지난 23회까지는 뉴욕 불교 국제 봉축 위원회(ICCBNY)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및 퍼레이드 행사를 해오다가 올해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가 행사를 주관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뉴욕불교신도회 등이 후원했다.



(뉴욕 거리의 제등행렬)

### 조계종 교육원, 외국인 스님 대상 연수회 개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 스님)은 5월 11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외국인승려 연수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으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는 미국, 영국, 호주, 체코, 스리랑카 등 전 세계 22개국에서 조계종으로 출가한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 등 외국인 스님 60여 명이 동참했다. 교육원은 이날 외국인 스님들에게 해외특별교구, 템플스테이, 해외NGO활동, 이주민법회 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진행 중인 종단 사업들을 설명하고, 스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또 승가고시 및 승적관리, 전담부서 운영 등 외국인 스님들이 포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개

선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전법포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종단의 지원정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조계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조계종 소속 스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육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외국인승려 연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템플스테이 현황과 외국인 상시운영사찰 소개



### 세계불교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 정진대회 '홍콩 세계불교포럼'

제3차 세계불교포럼이 "세계공동화합의 구현"을 주제로 지난 4월 26~27일 양일간 홍콩체육관, 북호공항호텔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홍콩불교협회, 중국불교협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회회장 보선스님을 대표로 총 35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대표단은 25일 저녁 주최측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6일 개회식과 홍콩총영사관 만찬, TV토론회(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장 영담스님) 및 학술주제발표, 폐막식 등의 일정에 참여하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총회회장 보선스님 대독)은 한국불교를 대표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난관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세계불교의 화합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다 함께 정진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오는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여수에서 개최되는 WFB한국대회에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홍콩불교계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했던 행사로 1차, 2차 대회에 비하여 그 대회 규모가 축소되었고 대회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또한, 다채로운 주제발표와 분과토론에도 불구하고 대회 선언문 공개와 전달에 미흡한 측면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미흡한 대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불교계가 세계불교포럼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한 대외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번 대회는 WFB한국대회를 준비하는 한국불교계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 대회였다.

글\_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세계에 불교를 알리는 사람들

#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스리랑카 팔리 학자인 Malalasekera 박사가 불교도 모임을 만들 것을 최초 제안한 이래,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불교도 모임을 만들기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이후 제창된 불교도 모임에 아시아·유럽·북아메리카의 불교 대표단이 참여하기로 동의하였고, 27개국에서 129명의 불교 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런 계기로 ‘세계불교도우의회(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는 1950년(B.E. 2493) 5월 25일에 창립되었다.

전 세계의 소승불교, 대승불교 또는 티벳 불교로 분류된 거의 모든 불교 종파가 한자리에 모인 불교 역사상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상한 교파의 관습과 관행에 관

여치 않고 불교를 홍보하고 전파시키는 데에 힘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현재 40개국 170개 지부가 속해있는 명실상부한 불교계 대표 회의로 자리잡았다. 스리랑카에서 개최하던 세계불교도우의회 본부는 현재 태국에 있으며, 회장은 판 와나메티이다.

제25차 스리랑카 대회에서(2010년) 차기 대회 개최지로 한국 여수가 확정된 이래, 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2011년 11월 23일 정식 출범하였다. WFB 한국대회 명예대회장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대회장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김의정, 조직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호남6본사 연합회장 중

삼스님, 집행위원장 진옥스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원 국제팀, 국제포교사회, 대한불교청년회 등이 본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불기2556(2012)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WFB한국대회에는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 제17차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제9회 세계불교대학협의 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회 주제는 “21세기의 불교생태환경사상과 수행”으로 “21세기 인류평화의 갈망에 보답하는 대회 그리고 세계 환경문제의 대안을 찾는 대회”로 만들어 내기 위해



WFB한국대회 조직위원회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본 대회를 통해 현재까지 조직화하지 못했던 국제 업무 담당자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사업과 불교 약세지역인 여수 지역의 불교결집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글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 한국 불교의 유럽 포교 방안

구소련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의 불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 불교에 관심이 있는 유럽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불교공부를 위해 몇 개월 혹은 일 년 정도씩 자비부담으로 미얀마나 태국, 인도 등으로 간다. 그들은 한국의 불교 문화에도 호감을 갖고 있다. 김기덕 감독의 불교 관련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국의 불교를 체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너무 폐쇄적이라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없다.

그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1년이나 2년 과정으로 출가를 시키고 속퇴를 하여도 불교와 부처님 가르침, 한국 불교의 옹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6개월 정도는 한국 사찰(서울이나 대도시를 피하고 한적한 본사급 사찰)에서 스님으로서의 기본 소양(예불과 참선, 체조참선, 음식 만들기-유럽의 남자들은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수지침이나 뜬 등의 보건 또는 불교 의학·다도·연등 만들기 등)과 기본 실용 한국어를 익히고 그 다음 1년이나 6개월 정도는 은사가 계신 사찰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 때 처음 6개월(또는 3개월 정도)은 지원자에게 무료가 아닌 실비를 받고, 기본 교육을 이수하면 은사나 기타 후원자가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중방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불교와 문화의 마력이다. 은사가 계신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학교(초·중·고교)에서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한다. 학생들과 규칙적인 시간에 놀아 주며 영어로 된 불교와 노래 등을 가르쳐 주도록 한다. 유럽에서 불교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소위 인텔리 계층이 많다. 그러면 은사가 계신 지역의 주민이 불교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은사와 생활한 다음에 상황이 허락되면 제자가 있는 곳에 조그만 불교인을 위한 모임 장소인 센터를 만들어 주어도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보내 주어도 좋다. 대신 이 제자들에게 불교뿐만 아니라 두부나 산중음식을 만들고 요리하는 법과 연등을 만드는 방법(인테리어로 활용), 다도 등을 가르쳐 주어 귀국하여도 일정한 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능하면 참선과 참선체조를 이수토록 하여 유럽인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약 유럽의 청년이 두부 등을 비롯한 산중음식과 참선체조와 참선을 가르친다면 그는 충분히 그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다. 유럽의 상황에서는 현재 1,500유로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며 이 정도로 수입을 유지하면 굳이 어렵게 종교 단체 등록(일부 국가는 종교단체 등록이 힘이 드나 등록하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한다)을 안 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비록 속퇴를 하여도 한국 사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를 통해 유럽 여행을 한다든지 차를 조금씩 보내 준다든지, 연등과 곶 등을 만드는 재료를 보내 준다든지 한국의 불교 관련 음반이나 기타 물건을 조금씩 보내 주는 것으로도 은사와 한국 불교와의 유대는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유럽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홍보할 수 있다. 종단에서 각 국의 사찰에 홍보문을 보내어 유럽인 제자에게 홍보하고, 유럽에 나가 있는 불교 관계자를 통하여 한국의 불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한다. 사람과 하늘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행복을 위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법, 그래서 전하라고 분부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기준해 생각해 본다면 유럽에서 한국불교를 알릴 방법은 많을 것이다.

글 주지 조주스님 /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998-71-256-2207

## 국제선센터,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입재식

B-G.E.P(Bikkhuni-Global Empowerment Project, 비구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이 5월 6일(일) 오후 2시 국제선센터 지하1층 교육문화관에서 입재식을 했다. 두 프로그램은 인재 육성과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B-G.E.P은 비구니 스님을, G.E.P은 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B-G.E.P은 5월 6일(일)부터 7월 29일(일)까지 G.E.P은 5월 6일(일)부터 7월 22일(일)까지 진행하며 매주 일요일 국제선센터 교육문화관에서 수업을 한다. 두 프로그램은 영어와 한국어 두 개 언어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영어 독해와 회화가 가능한 비구니 스님과 여성의 지원을 받았다. 정원은 각 2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B-G.E.P은 지난 5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국제선센터 4층에서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았다. 면접관인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스님과 ○○스님의 질문에 지원자 비구니 스님들은 소신을 다해 답했다. 면접은 시종 진지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면접관과 지원자의 역할을 떠나 국제무대에서의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터놓고 논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 합격자는 5월 ○일( ) 개별 연락을 받으며 명단은 국제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과정 이수 후 선발된 비구니 스님과 우수한 여성 인재는 국제선센터 국제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글 국제선센터 제공

### ■ 강사진

지도법사	명법스님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B-G.E.P	미산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소모스님 (샌디에고대학 불교학 교수, 세계여성불자연합 전회장)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수미런던 (듀크대학 불교공동체 지도법사)	
	Christi Chang (세계여성불자연합 회장)	
	초은스님 (국제선센터 법사)	
그 외 각계 전문가		
G.E.P	교장	조은수 교수 (서울대 철학과)
		조성자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상지도자	최요원 박사 (서울대 행복연구소 선임 연구원)
		Christie Chang (세계여성불자연합 회장)
선준스님 (운문사, 예일대 졸업)		
이정원 (주)STX 인력개발팀 대리, 연세대 교육대학원 HRD 석사과정)		

### ■ 교육내용

B-G.E.P	불교 (Basics of Buddhism)
	글로벌 리더십의 비전과 역량개발 Global leadership
	대화의 기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 Communication Skill
	발표기술 Presentation Skill
	영어 원전 강독과 토론 Reading&Discussion
G.E.P	영어 통·번역 연습 Translation
	영어기사독해 Reading
	교수진 강연 Lecture
	영어 토론 Discussion
	TED Style 프리젠테이션 연습 Presentation
	네트워킹 Networking
	명상 Meditation
국제 컨퍼런스 통번역 봉사 Volunteering as a translator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	

# [활동가 편지]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신저이길 서원하며



(위)송경미 봉사단원(가운데) (아래)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쓰레기장 옆의 집들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에서의 봉사 활동

2012년 3월 4일 밤10시, 시엠립국제공항. 한국에서 출발한 3명의 봉사단원이 로터스월드 아동센터가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했다. 출발하기 전, 1년간의 이별 생각에 눈물 흘리며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던 것과는 달리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단원들은 설렘으로 캄보디아를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단원들은 센터를 둘러보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찌는 더위와 흐르는 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인사를 마친 후 앞으로 담당하게 될 아동결연에 대해 배웠다. 먼저 사무실에서는 업무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결연아동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해 차를 타고 센터를 나섰다.

센터 주변의 마을들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시엠립 시내 외곽에 위치한 쓰레기처리장이었다. 그 곳은 입구부터 진한 매연으로 막혀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 매연 너머로 비닐과 나무로 만들어져 차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한 곳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햇볕을 피해 앉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런 집들의 뒤편 안쪽에는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캔과 플라스틱을 모으고 있었다. 그 쓰레기 더미 위의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입이나마 한 짚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용기내서 “쑤어쓰

다이(안녕)”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신기한 듯, 한 번 쳐다만 볼 뿐 다시 쓰레기 줍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센터의 아이들은 잘 웃고, 또 인사도 잘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잠시 웃는 시간조차 사치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다시 차에 올라 센터로 돌아오는 길, 이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다. 과연 어려운 것 없이 살아온 내가 그 아이들을 동정하고 안쓰러워 할 자격이 있는 걸까? 이 낯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특히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날이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나를 비롯한 우리 단원들은 더운 것이 캄보디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느낄 만큼 잘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나라의 이면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동결연은 한국에 있는 후원자와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진심을 전해주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난중일기보다 치열하고 백범일지보다 고결한 것이 청춘일기라 들었다. 내 청춘 일기에 ‘2012년 나는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 메신저였다.’ 라고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내고 싶다.

글\_ 송경미(2012년 NGO해외봉사단원)  
후원계좌\_ 우리은행 1005-201-822412  
예금주\_ (사)로터스월드

## 더프라이스와 코이카 “동티모르에 희망의 물길 연다”

국제구호단체 더프라이스(이사장 범등스님)와 코이카(이사장 박대원)는 수도시설이 없는 동티모르 오지마을에 희망의 물길을 연다. 아수마노 리키사 주(州) 2개 마을에 올 연말까지 3채의 집을 수리하고 총 18개의 공용수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코이카에서 지원받은 약 1억 원과 자부담금 5000여 만원을 투입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며 “완공되면 총 770명의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 받는다”고 밝혔다. 리키사 주 4개 마을 가운데 카이카시코와 키릴렐로는 정부 지원권 밖으로 밀려나 식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은 물론 어린이들이 매일 경사가 가파른 계곡 수원지까지 물을 길러 가야만 한다. 주민들은 지역 내 4~5개의 소형 집수정에 인근 계곡의 물을 받아 식수로 쓰고 있지만 노후화되고 관리를 소홀히 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프라이스는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NGO 단체인 아플리멘텍 재단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3개의 수도 파이프 공사를 실시해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에 공용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걸어야 했던 주민



들은 15분 이내에 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수질개선을 위해 집수정에 석회질 필터링 장치도 설치된다.

지난해 4월 현지에 파견돼 조사를 마친 정성훈 활동가는 “우기철인 11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까지 이동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며 “수도 시설이 생기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프라이스는 가구 전체에 장기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들도 유지 감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매월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상임이사 묘장스님은 이 사업이 “식수개발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생명선을 잇는 워터로드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프 1m 사기” 후원문의 070-7596-9988~9

## 비구니 스님 모임 ‘마하회’,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꿈의 터전을 선물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비구니스님의 모임인 마하회(회장 운문사 주지 일진스님)는 (사)지구촌공생회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제야아웅 초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1차로 3천만 원을 2012년 4월 17일 지구촌공생회에 기부했다. 미얀마 제야아웅 초등학교건립 후원금은 교실 5칸, 교무실 1칸 건립 및 교실기자재인 책걸상, 칠판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제야아웅 초등학교는 사원학교로서 부지는 있으나 학교건물이 없어 스님들의 처소나 법당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등록금과 교복, 학용품 등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정부학교를 가지 못한 155명의 학생들은 사원에서 스님

들이 운영하는 제야아웅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마하회 회장 일진스님은 인터뷰에서 “우리 불교계의 큰 어른신인 송월주 큰스님이 하시는 일이고, 선배 스님들의 모임인 ‘화석죽회’가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미얀마 썬마디따 학교 건립금을 후원한 바 있어 선배스님들을 본받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원하게 되었다”며 “제야아웅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정된 학습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하회는 지난 1996년 창립된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으로, 현재 23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소외된 곳에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www.goodhands.or.kr](http://www.goodhand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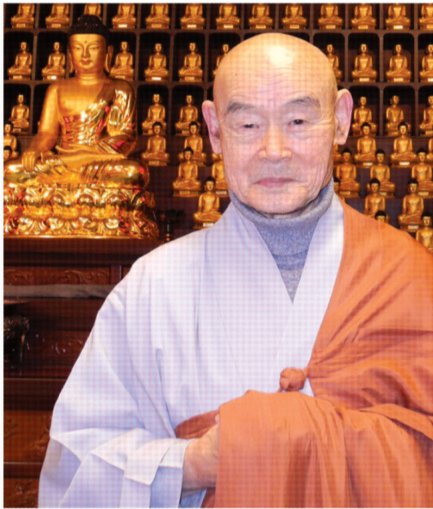


(좌)마하회 스님들 (우)제야아웅 초등학교

# 불교에서 보는 자유와 평화

## ◆ 모든 존재는 연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

요즈음 미국, 한국, 일부 중동과 유럽 등에서 정치, 경제,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극심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경제는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본주의의 장점에 의해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 즉 부(富)가 자본가를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극심한 경쟁으로 패자의 손실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피해는 결국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유와 권리를 국가법에서 보장되는 법치국가 제도에서 비롯된다. 이 제도에 의해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국가이기주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 필연적으로 갈등과 투쟁 및 긴장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만연되고 있는 이기주의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서구철학에서는 내가 존재하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보는 철학적 당위성에 의해 16세기 이후 서구에서 개인은 이윤추구의 자유와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식민지 정책, 인간 노예화, 자연 훼손, 1, 2차 세계대전, 한반도의 3·8선 설정과 6·25한국 전쟁, 최근의 지역분쟁, 지금의 세계 각국의 금융대란과 불안정한 경제 위기, 핵을 도구로 한 전쟁위협 등이 일반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되돌아 볼 때, 이기주의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이나 법치주의는 자연과 사람들에게 대대양을 물고 온 원인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기적인 나',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국가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두가 서로 연기하여 존재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기주의는 이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를 허용하는 사상이나 국가법은 진리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법이고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현실 정치의 근본이 되어 있는 한, 일반 사람들과 자연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불교에서는 하나의 존재는 우주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가 가능하다. 항상 우주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즉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들과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기주의의 사상은 진리에 위배된다. 다른 사람, 문화, 동물, 식물, 지구, 물, 공기, 햇빛 등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나, 사회, 집단,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전체에서 한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뜻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전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전체의 하나하나에 존재한다.” 전체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은 전체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은 곧바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고, 나는 전체의 하나하나에 존재한다는 말씀은 전체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전체와 개체는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라는 뜻이다. 일제(日帝)시대에 만공스님은 이 뜻을 쉽게 세계일화(世界一花, 세계는 한송이 꽃)라고 표현하셨다.

“전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전체의 하나하나에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 이 철학 이야기말로 이 시대를 개혁해 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전체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은 나의 한 마음은 가없이 넓어 이 우주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며, 어떠한 존재도 나를 떠나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서로서 연기하여 전체를 구성한다는 유명한 연기설(緣起說)이 여기서 나온다. 즉 일체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거대한 망(網, 네트워크)의 한 부분 부분인 것이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의지하며 연기하는 존재들이다.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나에게 그 이상의 해가 돌아오고, 남을 돕는 것은 바로 나를 돕는 것이라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 이 글은 3월 22일 시카고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이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전문입니다.

## 뉴욕 불광선원, 이웃 종교 학생들 방문

4월 22일 뉴욕 불광선원(선원장 휘광스님)에 굉장히 개방적인 개신교 종파로 알려져 있는 뉴저지 패라머스의 센트럴 유니테리언 교회 학생들이 방문하였다.

이 교회 중고등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종교에 대한 경험을 하고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아이들 7명과 선생님 한 명은 법회에 참석하였고, 따라온 학부모 4명은 1부 법회 참석 후 불광선원의 외국인 스님 대성스님과 차담을 하였다. 법회는 한국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삼귀의, 예불문, 반야심경, 참선을 하였는데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거부감 없이 절도 잘 따라했다. 그 다음 만화로 된 명상 동영상을보면서 중간의 1분 명상도 함께 했다. 만화 영상물이어서 아이들이 좋아했으며 간단한 달마토크도 나누었다.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종교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 아이들은 매주 명상을 하고 힌두교나 다른 종교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20여분의 토론 후 컵등 만들기를 했는데 의외로 잘 만들고 재미있어 하였다. 그리고 각자 만든 컵등은 선물로 주었다.

아직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긴 이야기는 못 나누었지만 인솔한 교사는 자신도 명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좋아하였고, 따라온 학생들도 포레들과 어울려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법회에 참가한 교회 학생들은 자신의 교회에 돌아가 여기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종교를 경험하는 교회 학생들을 보면서 갈등과 반목이 없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글\_ 불광선원 중고등부 법사 지호스님



## LA 선각사, 생전예수재 봉행 후 올리는 감사의 글

LA에서 처음 봉행되는 생전예수재의 원만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원해 주었던 불자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LA 선각사(주지 선학스님)는 지난 2월 5일 생전예수재를 시작하여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조석으로 금강경 독송을 하며 3월 25일에 회향하였습니다. 23일 어장스님인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스님을 초청하여 법회를 가짐으로써 본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함께 온 7분의 스님과 선학스님, 봉만스님 외 여러 스님들의 참석하에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4일에는 초청스님들의 주재로 법당에 모신 약사여래불과 104위 신중탱화 점안식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또한 25일 100여 분이 넘는 스님과 불자들을 모시고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 생전예수재를 여법하게 진행했습니다. 비바람과 추운 날씨도 불자 여러분들의 서원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만족하지 못할

조건이었지만 선각사 불자들의 열망으로 힘든 걸음을 해주신 봉원사 일운스님 및 다른 스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보살님들부터 나이 어린 학생들, 청년부의 젊은 친구들, 자원 봉사를 한 외부인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각사의 모든 신도들도 힘을 모아 주었지만, 특히나 주최자로서 온갖 난제를 풀어주시신 선학스님, 김용학 신도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LA에서는 처음으로 생전예수재를 성공적으로 치른 선각사의 위치를 불교계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살핌이고 신도 여러분의 공덕으로 이 행사가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에 동참하신 모든 신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글\_ 선각사 오정태 거사

LA 선각사 +1-213-487-6768



# 호주 보리사, 제3회 부처님오신날 기념 문화행사

## 시드니에 세계 불교와 문화 체험의 장 열어

보리사(주지 보안스님)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드니 버우드피크에서 4월 29일 문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국 절 정혜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불교를 알리려는 의도로 보안스님과 중국인 증운스님이 뜻을 같이해 문화행사를 열게 되었다. 3번째 갖는 문화행사로 다른 때보다 주변 호주인들의 참여가 많았고, 버우드 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본 행사에서는 시드니에 있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절의 스님들이 참석하여 각 나라의 염불을 하였고, 특히 스리랑카 코비다스님은 '나쁜 업을 없애는 법'을 주제로 설법을 해 주었다. 설법을 마치고 중국식 염불 '나무석가모니불'에 맞춰 108배를 하였다. 본행사에 이어 문화공연으로 설장구와 태평소 연주, 대금산조 연주가 있었으며 현지인들과 함께 투호 던지기,

단청문양 그리기, 연등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국 절 정혜사는 부처님과 돈황천녀춤을 공연했다. 특히 이날 보리사와 정혜사 신도들은 한국과 중국의 채식음식을 만들어 선보였다.

문화행사는 평상시 절에 나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방불교 국가의 불교와 수행법,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아직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문화행사는 점심시간 이후 날씨가 추워져 사람들

뜬해졌다는 것 말고는 큰 어려운 점은 없었다. 희망적인 것은 매년 조금씩 준비가 나아지고 있으며 이 무렵 불교 문화행사를 한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점이다. 시드니 보리사 +070-8235-5870

① 관음석하고 있는 각국 스님들  
② 단청문양 그리기 ③ 108배 ④ 참여대중들



## 시드니 정법사, 가족등 만들기 대회

미국에서는 한국의 제등행렬 행사가 잘 정착된 반면 호주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제122호)로 지정되면서 해외에서의 불교 행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등회가 불교에 국한된 행사에서 이제부터는 한국의 문화행사가 되기도 하니까 운신의 폭이 아주 넓어질 것 같다.

시드니 정법사에서는 5월 20일~27일까지 각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연등(컵등) 만들기 워크샵을 한다. 이제는 이런 행사도 단순히 불교행사가 아니라 한국 천년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법사에서는 가족등 만들기 대회를 한다. 가족이 모여 연등을 만들며 그간 소원했던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히 호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님들과 연등을 만들며 한국 천년의 문화를 가르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자칫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행사가 다른 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글\_ 정법사 총무 유영재

호주 정법사 +61-2-9462-7672



##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제2차 총무회의의 열어

지난 4월 4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는 불광선원에서 교구장 휘광스님, 부교구장 지광스님, 총무 문중스님, 재무 연경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총무회의를 진행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2012년 예산과 비영리 등록, 해외특별교구 1/4분기 활동에 관한 보고,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연수단 예산안 통과 등이 있었다. 그리고 회의안건으로는 추석맞이 퍼레이드, 교민대상 사찰음식 만

찬행사, 뉴욕 원각사에서 방학기간 중 어린이 청소년 합동 여름 캠프 3박4일 진행 예정, 포교원 포교부장 스님의 6월초 두 달간 미주 순회 법회에 대한 각 사찰 방문 날짜 조정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미동부지역은 해외특별교구를 중심으로 한국 사찰간의 원활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협력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_ 해외특별교구 총무 문중스님



### 미국 서부지역 불교계 동향

(제공\_오를랜드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 ① 제7회 삼보사 어린이 청소년 여름 캠프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북가주 연합 템플스테이인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가 3월 16일 자비봉사회 주관으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자비봉사회는 향후 템플스테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캠프에서의 역할 분담을 했다. 2차 회의는 4월 14일 삼보사에서 있었으며 공양을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운월스님, 형전스님, 혜주스님이 동참하며, 한국에서 주호스님, 일진스님, 지용스님이 대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5월 4일 보리사에서 3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5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템플스테이 기금마련을 위한 게라지 세일(Garage Sale)이 산타클라라 한국 마켓 옆(110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에서 있었다.

캠프 날짜는 6월 14~17일(유치원, 초등학교)과 6월 17~20일(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 진행되며 회비는 100달러이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② 젊은 불자들의 모임 '타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 타라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이틀간 제 2회 타라 와인파티 기금마련을 위해 보리사에서 게라지 세일을 했다. 기금은 400달러 조금 넘었다. 이 기금마련을 시작으로 여름에 젊은이들만의 만남을 위한 파티 준비에 한층 고무되어 있다. 불자가족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젊은 불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목적이다.



③ 지난 2001년 12월 25일 첫 법회를 시작한 세니앤드로의 사찰 죽림정사 보현스님이 한국으로 잠시 가게 되었다.

④ 보리사 국제 승가원생 원준, 지일스님과 새크라멘토 영화사 동진스님이 4월 14일 LA 관음사 영산재에 참석했다.

⑤ 보리사는 5월 6일 윤달 49일 관음기도 입재를 했다.

# 부처님오신날, 세계 각국의 축하 모습

▼ 대만의 관육식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당신은 무엇  
을 공양 올리겠습니까?

세계의 불교국가에서 베삭 데이(Vesak Day)라 불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봄에 열리고 있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보통 음력 4월 보름날을 부처님오신날이라 한다. 불자들은 베삭 데이에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일을 기념한다. 그것은 탄생, 깨달음, 열반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같은 날에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은 어머니가 네팔 룸비니동산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동안 태어나셨다.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은 일곱 걸음을 걸었는데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환생이며 나는 금생에 정각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은 부처님오신날 절에 연등을 밝힌다. 스리랑카는 형형색색의 등불을 켜서 부처님의 생애 이야기들을 표현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불자들이 보로부두르사원을 방문해 등에 불을 밝혀 하늘로 날려 보낸다. 대만은 불상에 향탕수를 부어 삶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싱가포르에서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 새들을 새장에서 놓아준다.

Huffington post [2012. 5. 5]



① 등불을 들고 절을 향해 가는 싱가포르 불자들 ② 인도네시아의 등공양 ③ 보로부두르사원에서 등을 날리는 스님들



## UN, 베삭데이(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다



(베삭데이에 참석한 한국스님들)

유엔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5일 유엔 본부에서 봉축 기념식을 가졌다. 봉축 기념식에는 각국 유엔 대표단과 스님들이 참석하였다.

스리랑카 대표인 팔리타 코오나 대사가 이번 행사를 주재했다. 반기문 총장은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이 오늘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팔리타 스리랑카 대사는 불교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비폭력 사상의 근간이었음에 대해 연설했다.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부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로마 교황청이 이날 연설에 참여했다. 기념식 후 로비에서 불교국가들의 문화공연과 19개국 대표음식들의 공양이 있었다.

한국대표로는 김숙 유엔대사와 미국내 한국사찰 스님들이 참석하였으며, 내년에는 한국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Asiantribune.com [2012. 5. 12]

## 인도에서 법화경 희귀본 공개

1931년 목동들에 의해 발견된 법화경 희귀본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이 법화경은 현재 파키스탄이 관리하는 카시미르 지역의 길깃에서 발견됐다. 이 경전은 5세기 것으로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불교경전이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즈음 설하셨다. 길깃 법화경은 인도 델리의 정부기록물보관소에 있다. 인도 정부기록물보관소와 일본에 있는 UN지정 비영리재단 '소카가카이'는 공동으로 이 법화경 원본의 복사판을 국가기록물로서 출판할 것이다. 이는 후대를 위한 귀한 자료로 보존되어 학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화경은 불교 탑 속 둥근 방의 나무 상자 안에 있었는데 목동들이 발견 길깃의 재상에게 가져갔다. 재상은 다시 스리나가르 지역 카시미르의 왕에게 보냈다. 이 사실을 세계에 공표했던 고고학자 아우렐 스타인이 길깃 법화경을 연구하고 있다. 기록물보관소 관리들은 이 고대 법화경이 잘



썩지 않는 자작나무 껍질에 기록됐고 추운 지역인 길깃에 있었기 때문에 수 세기 동안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BBC [2012. 5. 3]

## 참선하는 여우원숭이

사람들은 참선은 불교도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알겠지만 여우원숭이도 참선한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세바스티안 더가딘은 벨기에의 자연보존구역인 팍 파라디소에서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참선 중인 여우원숭이를 만났다. 더가딘은 "참선하는 여우원숭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무심한 듯이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The Sun [2012. 4. 23]



## 트위터에서 주목 받는 불자 랩퍼 "컬티베이터"

미국, LA - 만약 여러분이 지난 며칠 트위터 계정을 살펴보았다면 불자 랩퍼에 대한 글을 보았을 것이다. 컬티베이터(A Cultivator)에 대한 글을 처음 받았을 때는 좀 과장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운로드해서 어떤지 알아보려 한다.

25MB용량의 압축파일을 내려 받아보니 3개의 파일과 음악이 컬티베이터의 로고가 들어 있었다. 들어보니 내가 좋아하고 다시 듣고 싶어할 만한 음악이었다. 불교 트렌드도 인터넷과 SNS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려 노력하

고 있다. 또한 우리는 평화로운 안색의 승복 입은 사람들만이 불교도라고 생각하는 고정 관념을 넘어서길 바라고 있다.

100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예술가 밥 배시는 "컬티베이터는 캘리포니아 북부 출신의 신인이다. 안정된 소리, 굉장한 표현력, 예리하고 심오한 가사가 그를 주목받게 하고 있다. 기존의 음악과는 다르게 '평화'에 대하여 불교적인 랩을 부른다고 상처받진 마시라. 백인인 카니예가 달라이라마와 만났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Buddhist news

집중조명

# 20·30세대에 '지금 여기'의 행복을 전해

## 스탠포드대학에서 열린 일일 명상프로그램

접현종(Order of Interbeing) 승단이 마련한 웨이크업 캘리포니아투어(Wake up California Tour 2012)의 일환인 일일 명상 프로그램이 4월 14일 스탠포드대학교, 15일 UC 버클리에 성황리에 열렸다. 접현종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명상 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프랑스의 자두마을(Plum Village) 및 미국의 녹야원승원(Deerpark Monastery) 등 세계 곳곳에 다수의 명상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일 명상 프로그램은 소외와 고독, 절망이 존재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20~30대를 위한 것으로 명상을 통하여 일상 및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던지고 있다. 모든 답들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며 순간의 경이와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말한다. 그의 수행 역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열고 감각들을 통하여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가장 처음 순서는 함께 노래 부르기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어가는 동시에 숨을 천천히 들이 마시고 내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어지는 15분간의 명상은 호흡을 통한 집중의 연장선상이었다. 일상의 분주



〈와산하는 젊은이들〉

함 속에 살다 보면 바깥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시선을 오직 내면으로 고정시킴으로 순간을 보다 즐길 수 있었다.

그 다음 순서는 패널들의 이야기였다. 패널들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살고 있는 재가불자들로 그들이 알아차림을 통하여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경험을 풀어놓았다. 한 패널은 사회적 경제적 성공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느껴지던 순간들을 돌아다보았는데 그것들은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순간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패널은 한밤중에 차가 도로에서 멈추어 섰을 때 명상으로 인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순서로

입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패널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점심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미리 공지된 바대로 채식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곳에서는 식사 또한 명상이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온 우주에 감사하고 음식이 여기 있고 또한 내가 있음을 느끼면서 먹는다. 음식이 입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것을 인지하며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먹는다. 침묵 속에 이루어진 식사에는 일상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한 비구니 스님을 따라 걷기 명상을 시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신발을 벗고 땅과 교감하기도 하였다. 천천히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불을 살짝 스쳐가는 봄바람, 코에서 느껴지는 싱그러운 나무 냄새 그리고 발바닥을 간질이는 촉촉한 흙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숲에서 돌아와 눕기 명상이 시작되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몸의 각 부분 부분들에게 말을 걸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멈춰 있는 것이 없었다. 명상이라고 하면 보통 좌선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앉아서가 아니라 누워서 하는 명상은 좌선과는 달리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일일 명상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는 다르마 셰어링이었다. 참가자들은 그룹을 지은 다음 각자를 소개하고 나서 질문과 대답 그리고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일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루는 여타의 날들과는 달랐다. 숨 쉬고 먹고 자고 눕고 걷고 앉는 모든 행동들이 교묘한 동시에 너무나도 생생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느리지만 가볍하고 귀에서는 자꾸 같은 문구가 맴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 하라.

글\_ 오를랜드 보리사 신도 김재연

## 따뜻한 마음씨, 삶을 평화롭게 해

오늘 달라이 라마가 하와이대학 스탠드 세리프 스타디움에서 대중강연을 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평화에 이르는 길인 알로하(Aloha) 정신에 대해 말했다. 알로하 정신은 달라이 라마 자신이 수행했던 덕목인 친절, 따뜻함, 기쁨, 겸손, 인내, 봉사, 모든 것에서 좋은 점 보기 등을 상징한다. 달라이 라마는 먼저 자신은 그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오래된 친구로 생각해 달라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몸과 말, 생각의 올바른 행위가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며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몸은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짙은 마음은 쉽게 좌절하고 화를 내서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의 90%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 정신 상태의 반영이다.



〈달라이 라마〉

참선, 자신의 죽음과 유한성에 대해 관하기 등이 포함된다.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의 수행동기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모든 것에서 그렇듯이 수행에서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수행에 대한 헌신과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굳건한 의지력이 필요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빠른 방법이나 지름길은 없다. 맴돌 글래드웰은 어떤 것에 능숙해지면 10,000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달라이 라마는 누구든 정신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는 10,000시간 이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이듯 수행도 한 번의 기도와 의도에서 시작된다.

수행을 하고 싶으나 주변 사람들이 싫어

## 아쌔붓다정사, 미지의 극락세계

아쌔붓다정사는 인도 구와하티시에 흐르는 브라마푸트라강 건너 마을 아민가온에 있다. 붓다정사는 아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절로 언덕 위 나무들 사이로 높이 솟은 불상이 눈에 띈다. 붓다정사는 24년 전 C. S. Lama가 지었다. 사업을 하던 남편과 사별한 후 라마는 불교에 헌신했고 아쌔 정부의 도움을 받아 붓다정사를 세웠다. 라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구루 마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라마는 근처 슬럼지역에 살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교가 다른 아이들에게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무상교육을 한다. 붓다정사는 매일의 기도와 종교의식 외에 4월,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이들은 한 달 내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이 기간에는 주민이나 학생들 모두 채식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 집을 청소하고 장식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고 부처님을 목욕시킨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

되고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하고도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 축제가 열린다. 라마가 아이들에게 불교를 교육하는 데 있어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눈에 띈다. 라마는 계, 정, 혜 삼학의 불교윤리에 근거해 아이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내가 방문한 날은 마침 아쌔인들의 설날이었는데 '로갈리 비후'라는 봄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라마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통춤을 추었고 '구루 마이'는 아이들을 위해 축원을 해 주었다.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을 만난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아쌔에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쌔는 부처님이 생애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며 최후의 마지막 숨을 쉬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불교의 문화와 전통이 생소하지 않다. 아쌔붓다정사는 카스트, 신념, 종교에 관계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스러운 장소이다.

부디스트 채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어떤 사람에게 달라이 라마는 "자비심을 포기하고 싶은 핑계를 찾고자 하면 핑계는 무한히 많다. 나는 5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자비심을 내고 수행해야 했다. 왜냐하면 자비심은 역경을 만났을 때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사람들이 넓은 시각으로 사

물을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60명 어린이들이 흘러송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이들은 달라이 라마가 강조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몸, 진실한 정신의 뜻을 잘 표현해 냈다.

# ‘네팔의 어머니’ 자비의 집 이금현 선생님 별세

## 빈소에 네팔 이주민들 발길 이어져

네팔 이주민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이주민 지원활동을 해왔던 <자비의 집> 사무국장 이금현 선생님이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 30분쯤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별세했다(향년 65세). 네팔 이주민들은 한국의 어머니로 모시던 이금현 선생님의 갑작스런 별세를 믿기 어려웠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서 네팔 이주민들의 조문을 돕던 커겐드라 구릉씨는 “사실 지금도 어머니가 떠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불쑥 다시 나타나 나를 보러 올 것만 같다. 결혼하겠다고 처음 아내를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하시며 나의 결혼을 기뻐하셨던 분이였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금현 선생님은 커겐드라 구릉씨의 형인 나렌드라 구릉씨와 먼저 인연을 맺었다. 이금현 선생님은 당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 사무국장이었으며, 나렌드라 구릉씨는 당시 네팔불자모임(NBF)의 회장이었다. 네팔불자모임은 1995년 경실련 강당에서 산재피해자 20여 명이 모여 대정부 농성중 모임을 준비했고 96년 1월 창립법회 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당시 경불련 사무국장이었던 이금현 선생님은 97년 경불련 산하인 <자비의 집> 사무국장을 맡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자비의 집>에서 이금현 선생님은 노인·장애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네팔 이주민



들을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다.

이금현 선생님은 <자비의 집>을 중심으로 네팔불자모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네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다. 네팔 사람들의 한국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금현 선생님은 2007년 네팔 칸티폴TV 7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커겐드라 구릉씨의 아내 최근정씨는 “네팔 이주민들이 행사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이금현 선생님을 추억했다.

이금현 선생님이 활동하던 네팔 관련 사업은 자비의 집 후임자인 이명규 사무국장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네팔불자모임은 49재 이후 이금현 선생님 추모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좌) 커겐드라 구릉, 최근정 부부의 결혼식, 오른쪽 두번째 이금현 선생님 (우) 네팔 행사에 참석한 이금현 선생님(가운데)과 께벌 프라사드 코이랄라 주한네팔 대사(오른쪽 두번째)

##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알룻아우르뜨” 축제개최 전국 각지에서 스리랑카 이주민 모여

지난 5월 6일 광주 평동공원 일원에서 스리랑카의 설날행사인 ‘알룻아우르뜨’ 축제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주최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축제에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사 보헤스님을 비롯하여 티샤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 대사, 광주삼양연합회 회장 혜향스님과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스리랑카 이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에 마련된 배게싸움을 즐기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들

‘알룻아우르뜨’는 스리랑카의 설날인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불기를 쓰기 때문에 매년 4월 13일에 설날을 맞는다. 스리랑카에서는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키르밧라는 전통음식을 나눠 먹고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이날 행사에서 스리랑카 이주민들은 전통 스포츠인 크리켓과 함께 배구, 배게싸움, 상대방에게 요거트 먹여주기 등 20여 종목의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스리랑카 가수초청공연, 연꽃등

만들기, 스리랑카 음식 체험, 풍선 아트 등 풍성한 문화행사도 마련되었다. 광주 스리랑카 공동체 대표 삼바씨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스리랑카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알룻아우르뜨를 기회로 네티워크를 맺고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스리랑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062-962-3395

## 동남아시아 설날 행사 전국 곳곳에서 열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은 4월 중순에 설날을 보낸다. 송크란, 쫄츠남, 띠잔 축제라고 부르며 사찰에서는 관불과 방생을 하고 스님들에게 쌀과 과일을 올리며 새해를 맞는다. 한국에서도 많은 이주민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다채로운 설날 축제가 열렸다. 14일에는 부

천에서 미얀마 띠잔축제가 열렸다. 같은 날 김포에서는 방글라데시 보이사비 축제가 열렸으며, 15일에는 산본에서 캄보디아 쫄츠남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22일 구미에서는 전국의 캄보디아 이주민 350여 명이 모여 설날을 기념하는 ‘테라와다 불교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마련되었다.



(좌) 캄보디아 쫄츠남을 리사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 (우) 방글라데시 보이사비 설날 축제에 텃청가 루파가 방글라데시 전통 춤을 선보이고 있다



네팔 이주민들이 행사 참가신청서 작성에 열중하고 있다.

## 창원시 외국인주민 한마당 축제 봉축문화재를 통해이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지난 4월 29일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일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문화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창원시 외국인주민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한마당 축제는 창원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진해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하였다.

창원시에서 처음 열린 이주민 봉축 행사는 진해 마하이주민센터(센터장 탄경스님)가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결과이다. 이날 축제에는 8개국의 나라별 먹거리 장터와 외

국인 주민 노래자랑, 봉축등 점등 제등 행렬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주민들이 고국에 있는 부모형제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 10대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지태스님, 진해구청장 이기태, 한국YBA 동두천이주민센터장 우르겐 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주민이 참석하여 부처님오신날 봉축문화재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진해 마하이주민센터 055-545-9595